

고대 경전부터 마트까지, 그 중심엔 ‘꿈’이 있다 [영감 한 스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07 10:24 ▾



와엘 샤키의 ‘십자군 카바레(Cabaret Crusades I)’의 스틸컷.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오늘은 이집트 출신 현대미술가 와엘 샤키와 나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샤키는 십자군 전쟁을 마리오네트로 재현한 연작 ‘십자군 카바레’(2010~2015), 신화를 재구성한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2012~2016) 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셀 도큐멘타, 샤르자 비엔날레,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 PS1 등 주요 국제전이나 기관에서 전시했고,

지난해에는 베니스비엔날레 이집트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역사를 주제로 한 대규모 음악극 ‘드

라마 1882'(2024)를 공개했죠.

감각적인 영상미와 스토리, 또 수십 명의 배우가 등장하는 규모로 눈길을 끌었고, 프리뷰 기간에는 이집트관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들고 온 작품들은 이들과는 사뭇 다른 초기작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슈퍼마켓에서 꾸란을 외는 작가의 모습이 담긴 20년 전 작품 '동굴', 유명 TV쇼를 패러디해 정치적 사건을 다룬 '텔레마치' 시리즈 등인데요. 최근의 대규모 프로덕션과 다른 작은 규모에 낯선 화면이 전시장에 펼쳐집니다.

처음엔 '내가 알던 샤키의 작품이 맞나?' 싶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런 출발점에서 대표작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인터뷰였습니다.

**20년 전 만든 '동굴',
내 자화상 같은 작품**



20년 전 영상 속 와엘 샤키와 2월 27일 갤러리에서 만난 와엘 샤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년 전 만든 작품 '동굴'을 한국에서 다시 보니 어떤가요?

“기쁘고 즐거워요. 이 작품은 자화상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이고, 제 직접적인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4년 터키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잠시 살았는데, 이때 터키는 유럽 연합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이 충돌하며 큰 정치적 긴장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 무렵 저도 정체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죠. 나의 종교적인 배경(이슬람)과 세속적인 세계(유럽 연합)를 관련지으려다 나온 것이 이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슈퍼마켓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거의 동일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세계의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저는 꾸란의 '동굴' 장을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꾸란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자신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힘과 지식을 얻을 수 있

고, 그런 다음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중에서도 ‘동굴’ 이야기는 마을에서 핍박받는 외부자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외부자들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했고, 신은 이들을 동굴에서 수백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잠에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이들이 깨어나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신의 기적의 증거로 믿게 되었죠.“

- 이 내용을 왜 슈퍼마켓에서 말하려고 한 건가요?

“그게 나의 자화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술가로 다른 문화권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우산 아래 있어요. 마치 어느 나라나 상품이 똑같은 것처럼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태어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살았던 저는 그것과는 다른 모든 기억을 내 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꾸란의 내용을 끊기지 않고 원테이크로 외워서 말하는 제 모습을 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틀리거나 까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했죠.

이 작품 속 모습이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어려 보이기만 할 뿐...”



안와르 사다트(1918~1981) 전 이집트 대통령 암살 사건을 어린이 배우들과 함께 재연한 작품 ‘텔레마치 사다트’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 그렇게 슈퍼마켓에서 꾸란을 외웠던 이유는, 당시 처했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처한 상황이나 나에 대해 이해하려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작품들도 기본적으로 ‘이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 ‘텔레마치’ 연작은 제가 어린 시절 자주 보았던 독일의 유명한 TV쇼인데요. 이런 TV 쇼를 보는 것과 같은 시기에 이집트에서 대통령 암살 사건(안와르 사다트(1918~1981)가 제4차 중동전쟁 승리 기념 퍼레이드를 하다 습격당하는 것이 중계됐고, 그 후 호스니 무바라크(1981~2020) 독재 정권이 30년간 통치했다)이 일어났죠. 어린 시절 TV에서 그 두 가지를 보았던 느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할지는 몰랐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 ‘동굴’을 만들고 나서 나에 대해 좀 더 이해했다. 그런 만족감이 들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놀라운 건 처음 그 작품을 했을 때는 터키의 상황에 관해 표현한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왜냐면 터키에는 인구 97%가 무슬림이고 어디에나 모스크가 있고 모두가 아랍어

로 기도해요. 그런데 터키인들 대부분은 아랍어를 할 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터키에서 전시했을 때 아주 많은 공감을 사고 인기를 끌었는데, 그 후 국제적으로도 아주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됐어요. 그 이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시한 작품보다 더 많은 반응을 얻었죠.

- 저는 그러한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금 광화문에 가봐도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맹목적이고 낯선 기분을 이 작품에서 느꼈습니다.

“네. 다만 이 작품에서 제가 그 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기자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꾸란을 암송하는 방식도 리포터가 말하듯이 건조하게 읊었죠. 또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 자체를 말하려고 했어요.”

‘더 나은 곳 향한 욕망’, 종교와 역사, 시대를 넘는 공통된 꿈



독일 헤비메탈 밴드가 이집트 농촌 마을에 갑자기 나타나 공연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작품 ‘텔레마치 서버브’(2008).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 ‘동굴’ 작품은 슈퍼마켓에서 꾸란을 외는 모습을 라이브로 담아서 결혼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텔레마치 교외’는 독일 밴드를 이집트 마을에 갑자기 가져다 놓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돌발적인 것을 넣어 반응을 보는 걸 즐기나요?

“네, 그런 것이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품을 만들 때 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사회 시스템이 정말로 진화하고 발전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유목민 사회, 농경 사회, 도시 사회 사이의 시스템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유심하게 봐요. 그 변화는 흰색이 검은색이 되듯 갑자기 변화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 성장 배경에도 영향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인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사막 유목민 사회인 메카에서 성장기를 살았어요.

어린 시절의 겪은 다른 문화들이 항상 제겐 의문스러웠어요.”

- 그래서인지, 서로 다른 문화에서 공통되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받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제 생각에 저의 작업에서 주된 것은 전환기의 사회, 전환기의 문화를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하려는 꿈’이 있죠. 이 꿈은 항상 같은 것이에요.

십자군 전쟁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사다트 대통령 암살에서도. 또 베네치아에서 선보였던 ‘드라마 1888’에서도 그래요. 항상 사회는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 결국 모든 것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군요.

“발전하고 싶은 욕망은 인류의 공통된 것이죠.”

- 그러니까 ‘동굴’에서 슈퍼마켓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이민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민’가는 이유는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것이 심지어 꾸란에도 나와요. 꾸란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발전하려는 욕망’이죠.”



알 아크사 공원(2006).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의 돔’은 이슬람과 유대-기독교 문화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로 역사적으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어지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바위의 돔’이 회전목마처럼 회전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 그런 점에서 1층에 전시된 애니메이션 작품 ‘알 아크사 공원’이 생각나네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욕망이 응축된 것 같은데 그걸 위태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물은 ‘바위의 돔’인데 이 작품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순환’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기구가 멈춰야 입장할 수 있으니 그걸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영상 속 놀이기구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돌죠.

다른 작품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에도 절대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약간씩 바

귀긴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고, 약간 바뀌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는. 마을 지도자가 여왕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여왕은 지도자의 목을 베어 시장에 던져요. 마을 전체가 날뛰며 여왕을 죽이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고, 죽은 지도자의 형제가 여왕과 결혼하기로 해요. 마을은 환호하고 결혼식을 올리면 여왕은 또 남자의 목을 베어 시장에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죠.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 2025년에 당신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글쎄요. ‘동굴’ 작품의 의미가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우선은 가장 단순한 드로잉에서부터 시작해 볼 것 같아요.”

-

20년 전 작품과 지금이 변한 것 없다고 처음에 말했던 작가는 마지막엔 ‘많은 것에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요. 크게 보면 달라진 게 없고, 가까이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고,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돌고 돌면서 만들어지는 세상사. 그게 와엘 샤키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사막 속의 텐트에 어린이들이 줄지어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 ‘텔레마치 셀터’. 바라캇컨템포러리 제공.

※ ‘영감 한 스푼’은 예술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의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계 전반의 소식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김민 기자 kimmin@donga.com